



꿈으로... 젊음으로... 눈부시게 빛난 광주의 밤



한국선수단 입장 3일 U대회 주경기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개회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태극기를 흔들며 입장하고 있다.

/특별취재단=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세계 젊음이 함께 손 잡고 빛나는 미래 만들자” 공감대

각국 선수단 사물놀이·강강술래와 조화 마당놀이판 꾸며

3일 밤 광주 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개회식 행사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빛으로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냈고 세계 젊은이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빛이 저렇게 많으면 왜 세상은 여전히 어두울까?”라는 물음으로 시작해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려졌다. 해답은 바로 ‘젊음’이었다. 온 세계 젊음이 함께 손을 잡고 젊음의 에너지와 생명력으로 모두가 함께 빛나는 미래를 만들자는 공감대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개회식 주제가 ‘U are Shining(젊음이 미래의 빛이다)’이었다.

이날 개회식 문화행사는 빛과 젊음, 문화가 어우러졌다. 젊음을 대표하는 그룹과 배우, 퍼포머 등 2164명이 3시간 20분동안 젊음의 탄생과 만남, 미래의 날개 짓을 표현했다.

특히 주경기장은 세계의 젊음이 한데 어우러진 ‘마당놀이판’으로 꾸며져 눈길을 끌었다.

넓은 그라운드 양쪽으로는 양과 음을 상징하는 무대가 마련됐고, 그 중심에는 젊음의 가치와 교류를 상징한 대형 무대가 마련됐다. 중앙 그라운드 주변으로는 좌석이 마련돼 입장한 6000여명의 선

수단이 서 있을 필요가 없이 좌석에 그대로 앉을 수 있게 했다. 선수단이 앉은 자리와 무대가 가까워 선수단은 공연자들과 함께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배치되면서 함께 교류하는 마당놀이판으로 형상화됐다.

이날 공연은 형형색색의 화려한 영상 속에서도 사물놀이, 강강술래 등 우리 전통 민요와 조화를 이루는 등 마당놀이판으로 꾸며져 박수 갈채를 받았다.

개회식을 지켜본 시민 이강현(37·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는 “아직도 2002년 월드컵의 감동을 잊을 수 없는데, 광주에서도 또다시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열려 기쁘다”며 “월드컵 4강 진출의 신화를 이룬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시 한 번 감동의 신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명훈(52·광주시 북구 임동)씨는 “타 도시에 비해 소외됐다고 느꼈던 광주가 커다란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광주시민으로서 너무나 뿌듯한 일”이라며 “그동안 실감나지 않았는데 개회식이 시작되자마자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성화 점화자는 박찬호·양학선

김덕현→최은숙→김택수→임금별 이어 최종 전달

한국 스포츠에 ‘첫’ 역사를 연 박찬호(42·야구)와 양학선(23·체조)이 ‘빛고을 광주’에 불을 밝혔다.

2만2700km를 달린 성화는 한국 최초의 ‘빅 리거’ 박찬호와 ‘체조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학선의 손을 통해 화려한 불꽃을 피웠다. 이날 개회식 마지막 성화 봉송은 지역 출신 스포츠 스타들이 책임졌다.

‘한국 육상 도약 종목의 자존심’ 김덕현(30·광주시청)이 가장 먼저 성화를 들고 불이 꺼진 광주월드컵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펜싱 국가대표 최은숙(29·광주 서구청)에게 넘겼다. 최은숙은 2012런던올림픽, 2013카잔유니버시아드, 2014인천아시안게임 예매 여자단체 은메달에 빛나는 선수다.

탁구 종목에서 파워 드라이브로 아시아 무대를 제패했던 광주 출신의 김택수 대우증권 토네이도 감독(45)이 세 번째 주자로 나서 불을 밝혔다. 이어 차기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기약하고 있는 ‘대권

도 소년’ 임금별(17·전남체고)이 넘겨 받아 이번 대회 금메달을 겨냥하고 있는 ‘도마의 신’ 양학선(23·한국체대)에게로 향했다.

양학선은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 체조 금메달이라는 역사를 남긴 스타 중의 스타다. 그리고 양학선은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으며 통산 124승이라는 기록을 남긴 박찬호를 만났다.

한국 스포츠의 새로운 역사를 연 두 사람은 함께 점화대로 향해 불을 지폈고, ‘Light up tomorrow’이라는 점화대 불꽃과 함께 14일까지 광주를 밝힐 성화대에 불이 들어왔다. 한편 5월18일 대학 스포츠 발상지인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채워진 성화는 차기 하계U대회 개최지인 대만 타이베이시를 향한 뒤 한국에 왔다. 1만9000km에 거친 대장정이었다. 그리고 6월2일 무등산 장봉재에서 채워진 성화와 합화된 뒤 3700km의 길을 달렸다.

/특별취재단=김여울기자 wool@

이모저모

입장권 못 구한 시민들 경기장 주변 장사진

입장권을 구매하지 못한 시민들은 주경기장 주변 잔디밭에 의자와 돛자리를 펴고 ‘불꽃놀이’라고 보겠다며 장사진을 쳤다. 주경기장 북문을 따라 삼삼오오 자리를 잡은 200여 명의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개회식을 지켜보며 대회 열기를 함께 느꼈다. 5살짜리 아들과 함께 나온 박광호(41·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는 “입장권을 구매하는 게 사실 부담스러웠다. 그래도 집에서 TV로만 보기엔 아쉬워서 경기장에 나오게 됐다”면서 “날씨도 좋고 밤하늘의 불꽃놀이도 아름다웠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외국 선수단 “광주에 감사” 플래카드 눈길

이날 개회식에서 브라질, 우루과이, 오만 등 외국인 선수단들이 ‘광주에 감사하다’는 한글 플래카드를 준비해 4만여명의 관중에게 박수 갈채를 받았다. 브라질 선수단은 이날 개회식에 입장하면서 ‘광주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합니다. Brasil!’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들었다. 또 오만 선수단은 ‘고마워요 광주’를, 우루과이 선수단은 ‘광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흔들며 입장했다. 이들은 관중석을 가득 메운 4만여명의 광주시민에게 플래카드를 보여주면서 손을 흔들었고, 광주 시민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호남대 중국 유학생들, 자국 선수 열렬 응원

자국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개회식을 찾은 중국 유학생들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호남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유학생 조우호(24)씨는 이날 여자친구인 주고나(여·24·광주여대)씨 등 중국 유학생 5명과 함께 중국 선수단을 응원했다. 조씨는 “항상 중국이 그러했다. 광주에서 중국 선수단들을 보니 가슴이 막 뭉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했던 것처럼 이번 대회에서도 1위를 할 것이라 믿는다”며 “강세인 수영·농구경기는 빼놓지 않고 찾아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입석 티켓 팝니다” 경기장 주변 압포 극성

개회식 행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밀려드는 인파에 압포상까지 극성을 부려 주경기장인 광주 월드컵경기장 주변이 몸살을 앓았다. 3일 오후 7시부터 행사는 시작됐지만 오후 8시30분까지 주경기장 출입구 곳곳은 밀려드는 관람객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표주 주변 압포상들이 “입석 티켓을 싸게 판다”고 활개를 쳐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오후 8시에 입장한 관람객 박모(여·22·서울시)씨는 “KTX를 타고 5시쯤 광주에 도착한 뒤 셔틀버스를 타고 왔지만, 검색대 통과하는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다”며 “입장권을 20만원이나 주고 샀는데 1부 공연은 하나도 못 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SNS도 “코리아 파이팅~ 선수들 파이팅~”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날 한국 대표팀을 비롯한 전 세계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 글이 이어졌다. 아이디 ‘didifactory’는 트위터에서 “드디어 광주유니버시아드가 오는 개막했네요. ^^ 열심히 노력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멋진 경기 기대합니다”라며 응원의 글을 올렸다. ‘4gkorea’도 “세계에서 모여든 젊은 스포츠맨들이 최선을 다해 주고 무탈하길 빌며 한국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합니다”라고 응원했다. /특별취재단=백희준기자 bhj@·박기용기자 pboxer@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
“U대회 성공개최”

2015 GWANGJU
**FANTASY4
 MUSIC FESTIVAL**

2015. 7.24 - 8.9 @상무조각공원 옆 1만평 부지

광주 최초의
 야외 워터파크 수영장이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운영됩니다!

에어돔 3D 판타지 쇼! | 워터파크! | 클럽 풀파티! | 한여름밤 치맥 파티! | DJ 뮤직 페스티벌 (7.24-25)

주최 光州日報 | 주관 INTERCOMMAX | 공연기획 총괄 REDEC | 행사운영·지원 총괄 CM 씨엔피알(주) | 전화예매 1566-6373 | 예매 인터파크 DISCO | www.fantasy4.co.kr